

KAF·KAI 리서치 프로젝트 출범



한미재단(KAF)이 한미연구소(KAI)와 파트너십을 맺고 ‘한인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’를 시작한다. 이번 연구는 미국 내 한인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책 결정자들과 공공기관에 전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첫 대규모 조사 활동이다. 오는 2028년 한인 이민 125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2년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며,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한인사회 및 지역 리더들과 공유할 예정이다. 이번 연구를 위해 익명의 기부자가 총 1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. 25일 오후 LA한인타운 EK아트갤러리에서 관계자들이 연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. 사진은 맨 왼쪽부터 KAF의 존 임 이사장, 제리 강, 고계홍, 알버트 장, 장태한 이사와 마크 김 KAI 소장, KAF의 강창근, 브라이언 정, 신영신 이사.

김상진 기자

#프로젝트

#리서치

#kai 리서치

#이번 프로젝트

#kai 소장